



순천시,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박차



순천시가 최근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순천형 일자리 창출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갖고 사업 추진에 힘을 박차를 가했다.

광양시, 내년도 재해예방 사업 국비 47억 원 확보

광양시는 2018년도 재해예방사업으로 국비 4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재해예방사업은 광양을 중심으로 전월면 월길지구 등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2개소 19억 원과 광양을 오성과 옥곡면 백암, 진상면 섬거지구 등 급경사지 불괴위험지역 정비사업 5개소 28억 원 등 총 7기 지구이다.

그동안 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그동안 정부 광양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수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직접 방문해 재해예방사업의 시행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 설명했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를 포함한 총 94억 원을 투자해 우기전인 내년도 우기 이전에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짚 중할 계획이다.

조준규 안전총괄과장은 "최근 지역 온난화에 따른 기상패턴 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증가하고, 태풍에 의한 피해가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자연재난 시진대비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해예방사업 국비 확보를 통해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광양=김충권 기자

화순군,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구축사업 유치

200억 원 투입 2021년까지 화순백신산업특구에 건립

화순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사업인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구축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군은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사업인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구축사업이 2018년부터 4년간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에 조성된다.

화순군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접근성 및 거점기능성, 인프라 운영의 적정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입지로 확정됐다.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은 화순읍 생물의약산업단지 일원부지 15,000㎡, 건물 5,0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2018년에서 2019

순천형 일자리 창출 추진 상황 보고회 개최

755명 목표…현재 336명 신규 일자리 창출

서의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원활한 사업수행과 방향 등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천형 일자리 사업은 총 56건, 755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88억1천만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336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순천시가 중점 추진 중인 반려산업, 글로벌 웹툰 센터 조성 등 4차 산업 중심의 기반조성을 통한 일자리사업의 추진황이 중점 보고됐고 예산 투입을 통한 직접 일자리창출 50건에 대한 추

진일정을 모두 점검했다.

전영재 순천시 부시장은 "어렵게 마련된 일자리 추경예산이 단 1원의 차질도 없이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사용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청년의 실업해결과 지역정책을 위해 청춘창고, 청춘웃장, 청년 웰빙지침 등 청년창업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 왔으며, 정부로부터 일자리 대상을 수상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순천시 홈페이지 7년 연속 '개인 정보보호 우수사이트' 인증 획득

자치단체 유일 7년 연속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 동시 획득

순천시는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와 안전성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부문(ePRIVACY)'과 '인터넷사이트안전부문(i-Safe)'에서 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양 부문에서 7년 연속 인증마크를 획득했으며, 이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순천시가 유일하다.

정보보호인증마크는 (사)개인정보보호협회에서 인터넷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근거한 인증심사를 통과한 사이트에 대해 1년 동안 인증하는 제도다.

순천시는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최신 정보 보안 규정에 맞춰 개인정보 수집 및 기술적인 시스템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인터넷사이트 안전을 위해 사이버 해킹 및 정보유출 방지 위해 보안관리 강화하고, 최신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성과 신뢰성을 인정받는 평가를 올렸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인증마크 획득으로 시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종영 기자

광양시, 느랭이골 자연휴양림 '가을 여행 야간명소' 선정



여행',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夜)간(間) 놀이' 테마로 구성됐다.

이번에 '야(夜)간(間) 놀이' 종 놀거리로 선정된 느랭이골은 가을 여행주간 홈페이지와 누리집, 모바일, SNS를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된다.

비밀의 숲 느랭이골 자연리조트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흐르는 백운산 자락인 디압면에 위치해 있으며, 편백나무 숲과 맥반석이 가득한 구릉 위 산비의 공간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또 각종 테마정원과 트레킹코스는 자연그대로의 휴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과 연인과 숲속에서 맞이할 수 있는 글램핑장이 있다.

특히, 수많은 별들과 함께 형형색색 빛나는 LED 조명의 불빛 향연의 아경이 일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느랭이골 관계자는 "이번에 느랭이골이 전국 야간명소 BEST 30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주말에 버스킹 공연과 이벤트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문수 관광과장은 "느랭이골 자연휴양림이 이번 가을 여행주간 야간명소 선정되어 광양시 대표 관광지로서 이름을 널리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 주변 관광 자원과도 연계시켜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나주시, 불법주정차 단속 팔 걷는다

단순 계도나 경고가 아닌 즉시 과태료 부과할 방침

나주시가 혁신도시 등 민원 상습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발 벗고 나섰다. 이제는 단순 계도나 경고가 아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지난 6월부터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교통질서 확립과 단속 반발 최소화를 위해 2회 이상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한 각종 사고 위험성이 높고 단속을 요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그동안의 흥보 및 계도가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추석 연휴 이후인 지난 1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등 불법주정차 민원이 많은 교통 혼잡구역에 단속차량을 수

시로 투입한다.

적발 시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및 그 외 차량)는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한 차량 통행량이 많은 혁신도시 구간 4개소 (△한전KDN 사거리, △중흥1~2차 아파트 앞 △빛가람동 주민센터 사거리)에 무인단속 CCTV를 설치 중에 있으며, 이면 11월부터 본격 운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단속 시비 또는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집서 있는 교통문화와 쾌적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전당연하는 건강증진이나 질병 예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